

노동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부산롯데호텔 최선녀 보건관리자

글·사진 박민승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사내기자



‘노동자의 건강은 내 가족의 건강이다’라는 문구를 되새기며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최선녀 보건관리자는
그야말로 ‘레전드’다.
부산롯데호텔에서만 무려
26년간 보건관리자로 근속하며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는 이 호텔 의료보건 역사의
산증인과 같은 존재다.
부산롯데호텔의 시설안전팀
환경안전보건담당 최선녀
보건관리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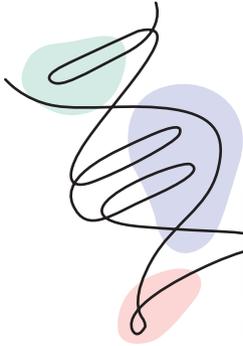


중환자실 간호사에서 보건관리자로

“신문을 통해 부산롯데호텔 보건관리자 모집 광고를 보았어요. 그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의무실에서 감기약이나 지급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입사하니까 사내 보건 업무를 다 다뤄야했어요. 1인 보건소라고 할까요.”

보건관리자이자 간호사인 최선녀 관리자는 울산 동강병원 중환자실과 동래 광혜병원 중환자실을 거쳐 1997년 부산롯데호텔 개점과 동시에 보건관리자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연차가 쌓이면서 산업보건 현장관리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 시스템을 개발해 왔고,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스스로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친절함을 갖추는 것은 물론, 보건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간호사 면허 취득,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까지 수학했다. 자신의 직업에 진심을 갖고 열정적인 행보를 보인 그는 ‘프로’이자 ‘전문가’ 그 자체다.





보건관리자를 돕는 보건관리자

호텔은 직무 형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병원 중환자실과는 또 다른 영역이었고, 호텔에 「산업안전보건법」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수시로 변하는 법령을 체크해야 했고, 치료가 아닌 예방과 교육에 집중하는 것도 조금은 낯선 일이었다.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는 상황에서 체계를 만들어야 했던 입사 초기, 모든 과정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입사 후 1년 만에 롯데호텔만의 맞춤형 건강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했다. 최선녀 보건관리자는 맞춤형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토대로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건강 데이터를 추적·관리하고 있다. 최선녀 보건관리자의 이와 같은 노력은 롯데호텔을 2011년, 2014년, 2017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게 했다.

“현재도 많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들이 제대로 된 업무 매뉴얼 및 지침 없이 스스로 업무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 경험과 노하우가 후배 보건관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녀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자신이 지닌 노하우와 지식을 나눠주는 멘토로도 활약하고 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에서 보건관리자 보수교육 강사로도 활동 중인데, 참가자들의 반응은 호평 일색이다.

- ① 최선녀 보건관리자는 맞춤형 건강상담 프로그램으로 노동자들의 건강 데이터를 추적·관리하고 있다.
- ② 최선녀 보건관리자는 하루 평균 많게는 7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상담을 한다.

항상 가족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호텔은 제조업과는 달리 위험요인이 다소 적을 것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 되는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고객들의 폭언이나 행동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직원들이 있어요. 건강증진실에 찾아와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는 하루 평균 30명, 많게는 7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건강상담을 하고 있다. 건강상담이 보건 관리 업무의 전부가 아니기에 임직원 수백 명과의 면담은 여간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노동자 개인의 상태를 이해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면담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또 최선녀 보건관리자에게 부산롯데호텔 노동자들은 오래도록 한술밥을 먹은 가족과도 다름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개인 면담은 절대 소홀히 되지 않는다.

“저에게 상담을 받은 후 관리를 시작해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일하는 보람이 느껴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이기에 남다른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최선녀 보건관리자. 레전드인 그가 있기에 부산롯데호텔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으로 거듭날 것이 분명하다. 🍷

